

Index

- 1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서울 강현중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 2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지도교사가 말하는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 3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영어 리플릿제작 교과융합 수업
- 4~5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경북 도성중 '모둠활동으로 배우는 정치개념'
- 6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충남 원이중의 하브루타 수업
- 7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경기 늘푸른중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 8 [이달의 시사 논술]
9·13 주핵시장 안정대책 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 9 [교육 초대석]
게임 접목 수업으로 수업혁신 도모하는
신수정 경기 동탄중 교사
- 10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담양 드론체험교육장 '1일 드론체험교육'
소마미술관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
- 11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친구 사이 윤희유 같은 또래상담사들의 맹활약

자유학기제 현장 돌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현중 학생들이 만든 요시모토 큐브 NO.3. 강현중 제공

서울 강현중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수학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서울 강현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물, 게임, 예술 작품 등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김희선 서울 강현중 수학 교사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는 좀처럼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였다.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수업은 매주 목요일 블록타임으로 묶인 5, 6교시에 총 34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생활 속의 수학(18차시) △게임 속의 수학(10차시) △예술 속의 수학(6차시) 순으로 이뤄졌다.

일상 속 수학 원리 탐구하며 흥미 UP!

중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생 시절 계산 중심의 수학 공부 때문에 '수학은 숫자와 싸워야 하는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 교사는 수학의 원리가 일상·게임·예술 등에 활용되는 생생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수학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과목임을 알려주고자 했다.

먼저 1~2차시는 숫자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표현한 사례와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장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의미하며, 남성은 1로, 여성은 2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3~4차시에는 사물에 담긴 수학적 원리와 유용성을 탐구해본다. 삼각형이 가진 안정성을 이용해 만든 삼각대는 카메라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음을 배우는 식.

5~10차시, 13~16차시는 입체도형을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이다. 먼저 5~10차시에는 전개도를 접어 입체도형을 직접 만들어본다.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요시모토 큐브 NO.3'이다. 이는 삼각뿔 12개로 이루어진 큐브로, 삼각뿔의 일부 모서리만 이어 붙여 만들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접었다 펼치면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하는 것이 특징. 김 교사는 "학생들은 큐브를 만들며 전개도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도형의 특징을 재밌게 익힐 수 있다"고 말했다. 13~16차시에는 '맹거 스피너' 만들기 활동을 한다. 맹거 스피너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육면체 각 면을 9등분한다. 그러면 커다란 정육면체가 27개의 작은 정육면체로 나뉘는데, 이중 정 가운데 위치한 작은 정육면체를 제거한다. 그리고 27개의 작은 정육면체들의 각 면을 또 9등분하여 다시 정 가운데 위치한 정육면체를 제거하고, 이를 반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피는 유지하되 표면적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데, 이 원리가 활용된 대표적 사례가 페다. 학생들은 일정한 크기의 페가 페포라는 구멍을 통해 표면적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도 이해한다.

11~12차시에는 식물을 관찰하며 꽃과 잎에 숨은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보고 17~18차시에는 다리가 유지될 수 있는 원리를 공부한 뒤 아이스크림 막대를 활용해 야치교를 만들어본다. 김 교사는 "일상에 숨은 수학적 원리를 스스로 찾아보며 관찰력도 기른다"고 말했다.



맹거 스피너 만들기 활동 중인 서울 강현중 학생들. 강현중 제공

게임으로 수학 자신감 높인다

김 교사는 게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같은 내용도 게임으로 익히면 수업 효과가 더 좋기 때문. 먼저 19~22차시에는 세팍타크로 경기를 보고, 경기에 쓰이는 공을 노끈을 엮어 직접 만들어본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공으로 세팍타크로 경기도 해봤다.

23~24차시는 수학용어 골든벨 시간으로, 우리가 쓰는 수학용어가 영어 또는 북한말로는 무엇인지 맞혀본다. 우리나라 수학용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단번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각'을 영어 'in angle'과 '등식'을 북한말 '같기식'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다.

25~28차시는 보드게임 시간. 학생들이 특히 즐겁게 참여한 건 '네모를 찾아서' 게임이다. 게임 방식은 이렇다. 먼저 84개 칸 안에 사다리꼴·마름모 등 여러 종류의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판을 준비한다.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이 적힌 카드가 담긴 바구니에서 카드를 하나 뽑고, 이 성질을 충족하는 사각형이 있는 칸으로 말을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평행사변형 칸으로 말을 옮기는 것. 말 주변에 해당 사각형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김 교사는 "게임을 통해 사각형의 성질을 친숙하게 익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적힌 카드를 뽑았다면 평행사변형 칸으로 말을 옮기는 것. 말 주변에 해당 사각형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김 교사는 "게임을 통해 사각형의 성질을 친숙하게 익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과 수학이 만나면?

29~30차시는 명화 속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 화가에서는 평면을 특정 모양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테셀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유명인데, 이 기법을 쓰려면 수학적 계산을 통한 정교한 공간분할이 필수. 학생들은 직접 테셀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31~32차시에는 스피너그래프를 그려본다. 스피너그래프란 큰 톱니 모양 안에 작은 톱니 모양자를 넣고, 작은 톱니 모양자 안에 있는 구멍에 펜을 끼워 돌리면, 큰 톱니와 작은 톱니가 맞물려 움직이면서 생기는 문양을 말한다. 톱니의 개수에 따라 문양이 바뀌는데, 여러 종류의 톱니를 이용하면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다.

33~34차시에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빛을 비추면 아름답게 빛나는 직육면체 빛 상자를 만든다.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점을 찍고, 가장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평면이 수직이등분선에 의해 여러 개의 다각형으로 분할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위에 투명한 필름을 씌워 그 위에 사인펜으로 색을 칠한 뒤, 안을 거울지로 채운 상자에 이 필름을 덧씌워 '빛 상자'를 만드는 것이다. 김 교사는 "작품을 완성하며 심미적 감각도 기른다"면서 "무엇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학을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희선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나도 몰랐던 수학적 재능 발견해요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요시모토 큐브를 만들며 입체도형의 원리 이해하기 △수학적 요소가 접목된 보드게임 하기 △수학의 원리를 활용한 예술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희선 서울 강현중 수학 교사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숨은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며 수학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임을 깨닫고, 게임·예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체험을 통한 수학 보기’ 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서울 강현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세팍타크로 공. 강현중 제공



학생들이 제작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빛 상자. 강현중 제공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1 학생들은 자유학기(년)를 ‘지필고사를 안 보는 학기(년)’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유학기(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하자마자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들을 수업을 선택하라고 하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만약 교과교실제까지 병행하는 학교라면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진다. 수업에 따라 학생이 교실을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낯선 환경과 비례해 학업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두려움을 재밌는 수학 수업을 통해 해소해주고 싶었다.

또 반드시 자신의 꿈이 수학자가 아니어도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색다르게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구를 활용한 활동이 많다보니 매번 준비물을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활동 후 어지러워진 교실을 정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준비물을 배부 받는 것, 그리고 활동 후 주변을 정리하는 것 모두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사의 품도 덜 될 것이다.

34차시는 결코 짧은 수업 시수가 아니다. 이 긴 시간을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쉬운 활동만으로 채울 수도, 교육적 효과를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활동만으로 채울 수도 없으니 어떤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지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적절한 수업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교사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업의 효과는?

지필고사를 잘 보는 것만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님을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학생들의 지필고사 점수와 일상에서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필고사 점수는 조금 모자라도 추론력이나 논리력이 뛰어나 주어진 활동을 훨씬 잘 수행하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수업에 게임이나 예술과 같은 소재를 접목 시킴으로써, 꼼꼼함이나 창의성 등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수학 시간에 드러난 것도 학생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김희선 서울 강현중 수학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생 개개인에 맞는 처방 내려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주제선택 프로그램의 장점은 교과 수업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예술을 수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디자이너가 꿈인 학생에게는 ‘너의 꿈은 디자이너잖아. 화가 예서처럼 테셀레이션 기법을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라고 질문해주는 식이다. 자신의 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

학생들의 수학 실력 차이를 극복하려면?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학과 관련된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보다 많아서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만은 수학에 대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져보기를 바랐다. 모든 학생이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지도한 이유다.

이때 학생들 각각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학생에게는 완성 자체에 의의를 두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주어진 시간 내에 도저히 완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이미 50~60% 정도 만들어진 ‘중간 완성품’을 나눠주되, 그것을 탐구하거나 변형해보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에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자리 잡게 된다.

제언

이 수업은 학생들이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활동이 많다.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돼 만들

기 수업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활동이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짚어주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면, 블록타임으로 묶인 2차시 수업을 보다 집중력 있게 끌고 가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선택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므로 교구가 필요하다면 지원된 예산 내에서 구입하면 된다. 단, 교구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재 활용품을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건도 심습니다.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최선경 교사의 영어기반 융합수업

우리 지역 관광정보센터에 내가 만든 안내책자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이하 경북사대부중)의 최선경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교과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구소개 리플릿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최 교사는 중1 영어 4단원 ‘A New Neighbor’를 사회·미술·국어 교과와 융합해 수업을 재구성했다.

학생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ESDG, Educ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살펴본 뒤 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정리한 후(사회) △해당 내용과 함께 대구의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영어로 작성하고(영

어) △이를 리플릿에 옮겨 적은 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활동을 수행했다(미술). △활동을 마친 후에는 동료·모둠평가를 실시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했다(국어).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실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경북사대부중 학생들이 제작한 대구소개 리플릿 일부는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비치됐다.

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작한 결과물은 교내에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결과물은 실제 지역사회와 연결돼 활용됐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컸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대상	과목	단원	차시
중1	영어	4. A New Neighbor	5차시
학습주제	[대구소개 리플릿 만들기] 대구 지속가능발전 모임을 고려하여, 영어로 대구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듣기	영중9141-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절차에 알맞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말하기	영중922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읽기	영중933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쓰기	영중9412-1. 주변의 실물, 그림, 사진 등을 보고 대상을 묘사하는 짧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영중9421-2. 학교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소재로 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1차시	문제상황 이해 및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2차시	내용 구성 및 영작하기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 제시하기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친구를 위해 ‘대구 소개 리플릿’을 제작하자는 문제상황을 제시한다. - 유네스코가 선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간략히 살핀다.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및 역할분담하기 - 리플릿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활동지에 정리한다. - 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하고, 우리조가 만들 리플릿(총 8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한다.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문장쓰기 연습 실시 - 활동지에 기재된 대구의 교통수단, 관광지 안내문 등의 예시를 영어로 번역한다. ▶ 리플릿에 들어갈 내용 영작 및 지면 구성하기 - 개별적으로 조사한 내용 가운데 리플릿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한다. - 리플릿에 기재할 사진과 글감의 위치를 활동지에 배치해보며 리플릿 프로토타입(견본)을 만든다.

교사의 도움말

이 수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따라서 1인당 리플릿의 두 면씩 구성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좋다. 각 모둠원이 자료조사하기, 영어 번역하기, 꾸미기 등 ‘역할’을 중심으로 일을 배분받으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영어실력을 기를 수 없기 때문. 모둠활동이지만 개별 활동적인 요소를 넣어 학생들은 글감 배치 및 자료수집 방법 등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영작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차시에는 함께 영어번역 연습을 했다. 이때 기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교사의 노트북을 활용해 단어사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 일부 학생들이 ‘번역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사가 무조건 이를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이 번역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적도록 해 번역 오류를 줄이고, 번역앱 대신 단어사전의 예문을 원하는 내용의 문장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영작을 유도하는 것이다.

3차시	개인별 리플릿 완성하기
4차시	모둠 리플릿 완성 및 동료평가
5차시	성찰일지 작성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내에서 배정된 역할을 토대로 개별 리플릿 작성하기 - 각 모둠원은 흰 종이에 개별적으로 두 면의 리플릿을 꾸민다.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리플릿 완성하기 - 각 모둠원이 작성한 리플릿을 색 도화지에 모아 붙여 모둠 리플릿을 완성한다. ▶ 동료평가 하기
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평가 참고해 리플릿 수정 및 보완하기 ▶ 성찰일지 작성 및 피드백 공유하기

교사의 도움말

미술작품 대회가 아니므로 지나치게 리플릿의 예술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독자를 위해 ‘가독성’과 ‘영어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 리플릿을 꾸미도록 해야 한다. 4차시에는 각 모둠원이 꾸민 종이를 한 데 모아 하나의 모둠 리플릿을 완성한다. 이후 자기·동료·모둠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친구와 다른 조의 작품을 평가하며 객관적인 분석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렀다. 5차시 성찰일지는 한글로 작성한다. 단,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찰일지 작성을 빨리 끝마친 학생들에게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면 다른 학생들이 힌트를 얻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성찰일지는 교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수업을 기획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된다.

교사의 코멘트

영어 교사 혼자 해당 수업을 진행했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미술 교사와 합심해 팀티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한 가지 수행평가를 통해 각 교과 요소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학교는 국제화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일본의 한 중학교와 교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일본 학생들이 대구만의 역사, 문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구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어 리플릿을 제작해보자며 관심을 유도했다. 만약 이 수업을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거나, 학교 원어민 교사에게 평가를 받는 등의 상황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영어번역 및 리플릿 제작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을 안내하는 한글, 영어 팸플릿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 최선경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영어 교사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의 거꾸로 교실 알쏭달쏭 정치 개념도 몸으로 경험하며 익히면 쏙쏙

민주주의, 대통령제, 입법부, 행정부...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정치 개념도 교과서를 통해 만나면 추상적이고 어렵기만 하다. 더욱이 정치 과정을 접해 본 경험 자체가 적은 중학생에게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와 같은 교과서의 설명은 정치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는 "정치 주체에 대해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 줘도 학생들은 이내 입법부가 곧 국회라는 사실조차 헛갈려 하곤 했다"면서 "설명만 듣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정치 주체별 역할

을 맡긴 후 직접 정치 과정을 수행해보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 국가라는 무대를 '학급'으로 옮긴 6차시 분량의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맡아 학급을 위한 정치 과정을 수행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따른 정부 형태를 각각 구성하여 정치 주체별로 역할을 맡아 수행해보면서, 두 정치 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교과	사회	학기	1학년 2학기	차시	6차시
단원	9.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0.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주요 핵심성취기준	[9사(일사)03-03]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체도를 정부 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 [9사(일사)04-01] 정치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한다.				
수업 내용	1. 우리 학급을 위한 대통령 선출하기 2. 모둠별로 대통령제 내 정치 주체 역할 맡아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3. 모둠별로 의원내각제 내 정치 주체 역할 맡아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1차시 수업으로 학급 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됨을 알려 주고, 학급을 위한 공약 등을 생각해 오도록 사전 안내 한다.



[1차시] 대통령 선거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급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이때 대통령은 학급을 하나의 국가로, 학급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가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입후보가 완료되면, 대통령 후보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공약을 발표하며 유세를 한다. 후보 간 공약 발표가 끝나면, 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을 상기하며 실제 선거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2차시] 정치 주체 정하기

모둠별로 각자 맡은 정치 주체를 정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은 필수적으로 한 모둠씩 맡고, 모둠 수가 5개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등을 선택해 맡는다.

정치 주체 역할 분담은 민주적으로 정한다(단, 대통령이 선출된 모듬은 무조건 행정부를 맡는다). 모듬별로 행정부를 제외한 정치 주체 가운데 1~3지망을 정한 후, 1지망이 같은 모듬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역할 분담이 끝나면 각 모듬이 맡은 역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듬별로 네임텐트(명패)를 만들어 세워둔다.

이어서 모듬 내 역할 분담도 진행한다. 교과서와 디딤영상을 참고해 각 정치 주체별로 세부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맡을 사람을 모듬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 보통 행정부에선 대통령 외에

차시	1	2	3	4	5	6
수업	학급 대통령 선출하기	[대통령제] 정치 주체 역할 나누기	[대통령제] 정치 과정 참여하기	[의원내각제] 정치 주체 역할 나누기	[의원내각제] 정치 과정 참여하기	[의원내각제] 정치 과정 참여하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수업 맡겨도 될까?” 두려움 떨쳐야



김혜진
경북 도송중 사회 교사

Q. 학생 주도 수업,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

교사가 학생에게 역할 수행에 대한 틀을 정해주는 순간 생각이나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쉽다. 또한 교과서를 찾아보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 찾아야 그 내용이 비로소 학생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수업은 학생 본인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가며 하도록 설계했다.

교사만 두려움을 떨치면 생각보다 학생들은 알아서 잘 해 나간다. 물론 교사가 틀을 제시해주는 상황에 익숙한 학생 중 일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교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Q. 이 수업의 효과는?

정치는 결코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정치 과정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 한 번만 경험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정치를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낄 뿐이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정치 주체가 되어 정치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정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

각자 맡은 역할을 바탕으로 학급의 규칙을 바꾸거나 학급 내 분쟁을 해결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학급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단합심도 높아진다.



정치 주체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를 맡은 모둠이 학급 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송중 제공



사법부 역할을 맡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고소(소송)가 제기된 사건을 정리해 작성한 소송기록부. 도송중 제공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입법부에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사법부에선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나온다. 언론과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도 각각의 정치 주체가 하는 역할을 참고해 모둠원별 세부 역할을 정한다(이때 각 모둠에서 1명은 꼭 모듬원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를 맡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역할을 제시하거나 정해주지 않는다. 학생의 질문은 받아주되, 궁극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정치 주체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 선택하게 한다.

[3-4차시] 대통령제-정치 주체별 역할 수행하기

3, 4차시는 본격적으로 정치 과정을 간접 경험해보는 시간이다. 우선 입법부는 '지각을 하면, 그 벌로 청소를 맡는다'와 같은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존재하는 학급 규칙 가운데 개정이 필요하거나 삭제가 필요한 규칙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국민(학급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살펴본다. 그 외 행정부의 모듬원은 각 부처의 성격에 맞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학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 규칙을 고안한다. 예컨대 교육부는 우리 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식이다. 논의 도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입법부로 가서 해당 내용을 법률(규칙)로 입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입법이 완료된 법안에 대해 수업시간 외에 담임교사에게 건의하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사법부는 물건 분실, 친구간의 다툼 등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 당사자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성격을 구분해 사법부에 고소 및 소송을 걸면 판사는 재판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 칠판에 적어 예고한다.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그 시간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고 예고한 시간이 되면 판사가 재판을 진행, 판결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하는 동안 판사는 재판 전, 판결에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입법부로 가서 관련 법안을 빨리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언론은 매 수업 종료 5분 전마다 칠판 앞에 나가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한 뉴스를 보도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을 맡은 모듬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듬 구성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다.

그 외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격에 따라 학급 전체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익집단은 '공익이 아닌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격에 따라 자신의 모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각자 생각해 낸 방안을 법률이나 제도로 보장하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에게 요구한다.

[5-6차시] 의원내각제-정치 주체별 역할 수행하기

대통령제에 따른 정부 형태와 정치 참여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꿔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해 본 모듬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듬 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을 맡은 학생들끼리 모여 별도의 선거 없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선출된 총리는 국회의원 가운데 함께 일하고 싶은 학생을 일부 골라 행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3-4차시에 정리된 규칙을 모아 법전을 만든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듬별로 사법부, 언론 등 역할을 정해 앞서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앞서 진행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가 바뀌는 5-6차시 수업을 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치 참여 활동을 마무리 한 후에는 1차시 때 본 디딤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교사의 관찰평가 및 모듬 내 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활동 및 참여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평가 채점기준 예시>

- 선거의 기능을 알고,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켜서 선거 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함.
- 정치 주체별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정치 과정에 올바르게 참여함.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임을 알고 있음.
- 프로젝트 진행에의 기여도가 높고, 타인과 활발하게 의견 교환을 함.

교과서 개념 이해부터 시험 대비까지 완벽하게!

개념 잡고 성적 올리는 필수 개념서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역사 | 과학

Mirae N 에듀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Q. 3, 4차시와 5, 6차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과정을 한 차시로만 끝내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각자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활동까지 소화하려면 2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블록타임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신 2차시의 시간을 통으로 학생 자유훈에 맡길 경우 자칫 활동이 늘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듬 역할 정하기 △세부 역할 분담 △주체별 활동 △정리활동(재판, 뉴스보도 등) 등 10분, 2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활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Q.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어떻게 유도하나?

자유학기 동안 진행된 수업이라서 별도의 평가는 없지만 학생 각자가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며, 수업 전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공지한다.

하지만 꼭 이 점 때문만이 아니라도 학생들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교사가 아니라도 각 모듬마다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서기가 있고, 학급 전체로 보면 언론이 각 주체의 활동을 취재·감시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학급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사이를 돌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Q. 제언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3~4차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정치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끼리 지식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모듬별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치 주체를 하나씩 맡아 역할과 주요 활동에 대해 공부를 한 후 돌아가면서 다른 모듬에게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각자 궁금한 점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 다 함께 학습 내용을 공유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10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립형 기숙 중학교인 충남 원이중의 방과후수업시간. 학생들은 모둠별로 "여자와 엄마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 "무인도에 무언가 한 가치를 두고 올 수 있다면 무엇을 두고 올까?"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이란 2명 이상의 학생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 수업이다.

심재희 원이중 사회교사는 학생들이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고,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고사리 디톡스(고전·사회학·인문학에 대한 디베이트 토론 쓰기, 30차시)' 방과후수업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소설 △벼랑 △무인도의 부자노인 △경년을 읽고 영화 '이퀄리브리엄' 등을 감상한 뒤 모둠 하브루타를 통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품의 내용을 깊이 이해했다.

심 교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페미니즘을 비롯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교폭력, 금전과 그 밖의 가치를 비교한 작품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작품과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며 "친구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작품감상에 깊이를 더하는 '하브루타'

심 교사는 수업에 앞서 책상을 'v'자로 배열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교실을 마치 카페처럼 만들었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사람들이 카페

심재희 충남 원이중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내 생각에 친구 생각 더하면? 감상의 깊이가 달라져요

에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해 학생들이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한다. 이후 4인 1조로 모둠 하브루타를 실시해 줄거리를 요약한다. 줄거리를 요약할 때에는 '기승전결' 4단계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한 학생이 인상 깊었던 장면과 이유를 말하면 그 다음 학생은 반드시 해당 장면 이후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말해야 한다. 그래야 만원결구조를 갖춘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줄거리 요약은 마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개별 질문을 만들고, 짝과 의견을 교환하는 짝공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벼랑'을 읽은 뒤에는 "누가 가장 나쁜 아이인가?"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등의 질문을 건네며 책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다.

심 교사는 "이는 추후 전개될 월드카페 토론의 사전 단계 활동"이라며 "평소 책을 빠르게 넘겨 읽으며 책의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던 학생들이 줄거리를 요약하고, 질문을 만들기 위해 책의 장면 장면을 꼼꼼히 읽으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체 토론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UP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한다. 이는 일종의 단체 하브루타로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모둠은 카페주인(사회자)을 한명 선정 후 앞서 만든 개별 질문을 활용해 10~15분간 모둠 토론을 실시한다. 이때 카페주인과 모둠원은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지에 자유롭게 적는다. 토론이 종료되면 카페주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둠원은 다른 모둠으로 자리를 이동해 다른 주제로 토론을 실시한다. 카페주인은 새로운 구성원에게 앞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와 같은 모둠 토론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원이중 제공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토론은 교사가 사회자가 되어 수십 명의 학생 중 몇몇 학생을 지목해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월드카페 토론을 실시하면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책(영화)에서 파생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심 교사는 "월드카페 토론은 질문의 깊이를 더하는데도 효과적"이라며 "수업 초기에는 책의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의 질문을 만들다가도 친구, 교사와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의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을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다. 또는 책 속에 등장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질문에 대해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도 했다. 심 교사는 "페미니즘, 사춘기 청소년의 성 문제를 다룬 소설 '경년'은 자칫 남·여학생 성대결로 번지기 쉬운 소재였다"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겪은 성 차별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자 공감의 폭이 넓어지며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삶과 연계된 다양한 질문 만들 수 있는 '작품 선정해야'"

Q.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에 겁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지나치게 학습 방향과 어긋나는 내용의 답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구별하기보다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그림, 감정, 가치 등이 적힌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각, 감정과 연관 있는 카드를 한 장 고르거나 한 뒤 카드를 고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

Q. 수업의 효과는?

하브루타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 신장에 매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갈등 △페미니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 다양한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다음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라고 먼저 물으며 적

극적인 참여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Q. 하브루타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콘텐츠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의 배움이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수업 참여도가 매우 낮아진다. 즉, 삶과 교과의 연관성을 이어주는 콘텐츠, 상상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년'과 '벼랑'을 선택한 이유도 교우관계를 중시하는 중학생들이 각각 사춘기 성 문제와 학교폭력을 다룬 작품을 통해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또한 수업 초기에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질문을 정제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는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이슈와 연관지어 질문을 만들도록 한다. 그래야만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함께 책을 읽은 후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은지 교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심재희 충남 원이중 사회 교사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경기 늘푸른중 임성은 교사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영상으로 쌓은 배경지식... 영어 공부의 자양분 되다

경기 늘푸른중의 영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을 학습하기에 앞서 유튜브 영상 및 영화 등을 시청한다. 본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주제와 관련된 영어영상을 시청하며 배경지식을 쌓는 것.

이 수업을 기획한 임성은 늘푸른중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의 읽기·듣기·쓰기·말하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영어영상과 '4RS(Reading Strategy) 기법'을 접목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과 연관된 영상을 시청한 뒤 4인 1조로 모둠을 이뤄 'Predict(예측하기)→Clarify(해석하기)→Question(질문하기)→Summarize(요약하기)' 4단계 읽기 전략으로 본문 내용을 학습했다. 교사가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일반적인 강의식 영어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영어의 네 가지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었다. 임 교사는 중3 영어 교과서 모든 단원의 수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교사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영어수업!

영어영상은 4RS의 첫 번째 단계인 '예측하기'에서 활용됐다. 임 교사가 본문 해석에 앞서 영어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학생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영어지문을 해석하도록 하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영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영상을 미리 시청하면 배경지식을 활용해 본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하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령 건축가 가우디의 인터뷰를 담은 교과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이라면, 그의 생애와 건축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먼저 시청한다. 이를 통해 가우디가 디자인한 구엘공원의 도자기 조형물이 재현용품으로



본문 해석을 마친 후 영어 질문을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 늘푸른중 제공

제작된 것이며, 그가 유년시절 자연을 유심히 관찰한 이유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등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을 파악한다. 이후 교과서 삽화를 보며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영어로 요약해 노트에 적고, 영상을 보며 궁금했던 사항들도 영어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모둠원과 함께 공유하며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정리한다.

이러한 '해석하기' 단계에서는 모둠원이 번갈아가며 교과서 지문을 읽고 해석한다. 이때 모르는 단어, 대명사의 의미 등은 문맥으로부터 추론해 읽는 것이 핵심. 학생들은 본문을 해석하며 앞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영상과 본문을 비교하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

임 교사는 "학생들은 주인공의 심정이 어떠한지, 영상과 본문의 논지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등을 비교해 읽으며 본문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영어실력은 기본... 비판적 사고력까지 기른다

해석을 마친 모둠은 '질문하기' 단계에 돌입한다. 이때 학생들은 두 종류의 질문을 만든다. 첫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묻는 체크리스트

학생들은 1인당 3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교사에게 질문의 적절성과 문법 오류 등을 점검받는다. 이후 모둠원들은 각자 만든 질문을 주고받으며 영어의 말하기 실력을 길렀다.

임 교사는 "교사가 직접 본문을 해석하지 않아 자칫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질문 점검과 모둠 내에서의 질문-정답 주고받기를 통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다음에는 본문과 자신의 삶을 연계한 질문인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을 만든다.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은 체크리스트와 달리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특징. 예를 들어 영화 '백투더퓨처'와 '미래 발명품'을 다룬 교과서 본문을 읽었다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주었나?"와 같은 질문을 영어로 만드는 것. 학생들은 활동지에 1개의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을 적고, 자신의 모둠과 다른 조에 이를 공유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적힌 활동지를 만나면 자신의 의견과 이름을 적는다. 활동지 교환을 마친 후 몇 가지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에 대해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며 삶의 태도와 가치관 등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영어로 글을 작성한 후 발표를 진행한 덕분에 적극적으로 발표에 임하며 영어 자신감을 회복했다.

임 교사는 "마지막 요약하기 단계에서는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학생들은 긴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기 위해 지문을 수회 반복해 읽으며 자연스럽게 내용을 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영어 역량 골고루 키울 수 있는 영상 선택해야”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단순히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업주제와 연관 있는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수업 한 단원을 차시별로 꼭 재구성했을 때 영상을 활용하는 맥락이 같아야 한다. 영어 교과서의 경우 읽기·쓰기·듣기·말하기가 균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영상자료가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 말하기, 쓰기 활동에도 활용돼야 수업의 목적을 살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영상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길이가 긴 영상을 사용하면 강의식 수업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5분 이내의 간단한 영상이 적당하다. 영상 시청 전 영상에 대한 정보, 시청하는 이유 등을 간략히 소개해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흥미요소가 탈한 나레이션식 영상이라면 주제 및 주요 단서를 찾도록 해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영상이 크게 재미있지 않아도 낯선 화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보인다. 게다가 영상은 구성 자체가 짜임새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상과 본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관한 질문을 만들었지만, 반복적인 4RS 훈련을 통해 점차 비판적인 질문, 삶과 연계된 질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과 본문 내용을 깊이 학습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다.

Q. 영어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다면?

질문을 만드는 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즉 질문을 구성하려면 이전의 학습단계가 모두 완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 학생들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질문을 만들라고 하면 자칫 질문 만들기에 부담을 느끼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스케폴딩(비계)'이 중요하다. 비계란 건축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사다리다. 건축물을 높이 쌓으려면 비계를 층층이 쌓아야 한다. 수업도 마찬가지다. 본문 학습을 4단계로 구성한 것처럼 수업에도 이러한 비계가 필요하다. 교사가 목표한 수준의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어 낼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탄탄히 짜야 한다. 글감의 난이도, 학습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하며 교사가 적절히 개입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급의 학습 수준에 따라 특정 학급은 10개, 20개의 비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임성은 경기 늘푸른중 영어 교사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잡으려면 도망가는 집값?



동아일보DB

정부가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달 13일,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이후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어(8, 10, 11, 12월) 올해도 추가적으로 3차례(2, 8, 9월)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렇듯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기 때문.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평당(3.3㎡) 1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고, 강북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도 강남 버금가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등장하는 상황. 실제로 올해 9월 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비해 10.23%,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4.61%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조세제도과 금융 대책이 망라된 초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 받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뜯어보며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고, 왜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하는지, 이번 대책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자.

수요와 공급 균형 맞추기 위해 세금 부과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초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토지구분 등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를 강화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수요란 경제 주체가 특정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를 말하고, 공급은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이 개념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자.

지금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 즉 수요가 공급보다 높기 때문에 집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집을 구매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돼 공급이 일정 부분 정상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서울 및 수도권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양질의 새로운 주택을 대량 공급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유독 부동산에 한해서는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경우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거나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는다. 왜 그럴까?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의식주와 직결되는 문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때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납부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집값이 급락한다면? 구매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수많은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하여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를 양산하고 이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IMF 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사태가 빚어져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반대로 부동산이 급등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불평등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즉,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게 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유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점점 더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 실제로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집 있는 것이 최고 스펙'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식주의 하나인 집에 지 나친 고비용이 형성되면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도 증폭된다"면서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쏠리게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여 지도 막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실효성은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꺾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폭등하던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 한 전문가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도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불리 집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선이 많다. 현재 집값이 폭등하게 된 원인에는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이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수요가 폭발해버리면 집값이 옹동칠 수도 있다는 것. 정부가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주목한다. 한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특히 전세 및 월세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의 경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월세 부담을 늘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집값이 폭등하면 대책을 내놓고 또 오르면 또 대책을 내놓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은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수립해 집값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값이 안정을 되찾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고려해 물가 상승의 원리를 파악해 보자.
2.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자.
3.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 ⑪. 국민경제와 경제성장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8년 9월 14일자,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일단 숨 고르기"...

지도법

중학생들은 직접 부동산을 거래해 본 경험이 없을뿐더러 복잡한 경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을 어려워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집값 상승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며 수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기 위해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즉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 정부가 어떻게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조자료로 집값 상승 그래프와 서울 재건축 및 신축현황 표 등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면 학생들이 이번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경은 경기 북쪽중양중 사회 교사





게임을 접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 높인
신수정 경기동탄중 교사

게임 수업, 경쟁과 보상은 필수? “이젠 옛말”

신수정 교사는 “경쟁은 게임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면서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특히 경쟁의 결과가 곧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요소가 없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여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건 지난 8월 개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등의 온라인 게임 경기가 ‘e스포츠’라는 이름의 시범 종목으로 인정되면서 게임의 가치가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e스포츠 국가대표팀은 메달 2개를 따내면서 사회적 문제로만 여겨지던 게임의 긍정적 측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됐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가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 교육계 역시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게임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게임 리터러시 교사 연구회원을 모집하는 등 게임과 관련된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는 게임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하고 일찍이 수업에 활용해 온 교사들이 많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게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막상 게임을 수업에 접목시키려 하면 ‘수업이 지나치게 산만해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 어떻게 해야 게임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색다른 게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필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이끈 신수정 경기 동탄중 사회 교사로부터 교육현장에서 게임의 의의와 활용 방법에 대해 묻고 들었다. 신 교사는 ‘질문으로 열고 통계와 게임으로 탐구하는 사회과 거꾸로 수업’으로 지난 8월 교육부가 주최한 ‘제3회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교과수업 개선 분과 1등급을 받았다.

경쟁과 보상이 있어야만 게임?

“자, 어느 조가 가장 빨리 찾을까?” “제일 많이 맞힌 사람!” “1등에게는 사탕을 줄게요.”

수업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풍경이 떠오른다. 누가 더 빨리 혹은 많이 맞히느냐 식의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만 게임이라 생각하는 것.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경쟁과 보상 요소 없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그런데 신 교사가 진행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경쟁도 보상도 없는 게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했을까.

의문을 해소하려면 일단 학생들이 어떤 게임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신 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게임은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주어진 규칙과 조건 안에서 행위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게임을 말한다. 신 교사가 개발한 ‘사탕 분배 게임’을 예로 들면, 4명의 조원에게 3개의 사탕을 나눠준 뒤(조건), 학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탕을 분배(의사결정 및 행동)하도록 하는 식. 경쟁-보상형 게임에 익숙하다면 일견 게임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경쟁과 보상 없이 대체 무엇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 답은 ‘주도성’에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도 캐릭터 선택부터 맵 선정, 아이템 구매까지 모든 것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한다. 바로 이런 주도성이 흥미를 복돋는 결정적 요인인 것. 게다가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빨리, 그리고 많이 맞히는 형태의 게임보다 스트레스도 덜하다.

“경쟁-보상형 게임도 때로 효과적인 수업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단, 경쟁에는 승리와 패배, 정답과 오답이 전제돼있지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실제 사회 역시 다양한 사람, 의견, 현상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사회의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보기에도 매우 좋습니다.”(신 교사)

무엇보다 퀴즈는 학생들이 이미 배운 지식을 사후 점검하는 데 그치지만, 시뮬레이션 게임은 누가 가르쳐주기 이전에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사탕 분배 게임은 정치가 ‘사회적 회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왕정과 민주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비교해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인데, 해당 개념들은 교사가 설명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직접 사탕(회소가치)을 분배하고, 1명이 혼자 나눠줄 때(왕정)와 4인이 토론해서 나눠줄 때(민주정)의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각 체제의 장단점을 쉽고 정확하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최소화해도 무방하다. 실제 신 교사는 이런 설명 없이 게임의 규칙과 조건만 알려주고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고. 신 교사는 “오�히려 사전에 이론수업을 하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온 것처럼 지루해한다”면서 “학생들을 믿고 맡기면 필수 개념과 원리를 도출해낸다. 교사의 역할은 그 원리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의외의 결과’ 나와도...

이처럼 시뮬레이션 게임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교사라면 게임에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 교사는 “문제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교과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 더 좋은 기회라는 것. 왜일까.

학생들 역시 사회적 존재다. 혹시 교과서의 원리대로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그 역시 사회적 존재가 만들어낸 결론. 따라서 실제 사회에도 이미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보자. 신 교사는 도시 단원에서 ‘부동산 게임’을 진행했는데, 이 게임에서 학생들은 교통망과 지대가 표시된 가상의 지도 위에 △상업 △공업 △주거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입지시킨다. 교과서대로라면 지대가 비싼 도심에는 월 수익이 높은 상업 기능 건물, 지대가 저렴한 부도심에는 주거나 공업 기능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수업 중 도심 한 가운데에 월 수익이 ‘0원’인 공원을 입지시킨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도심 한 가운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흔한 일. 학생 또한 실제 그렇게 형성된 도시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 교사는 “이미 적절한 규칙과 조건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아예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교과서와 다른 결론을 내린 학생에게는 그 이유를 물으며 스스로 원인을 생각해보게 하고, 비슷한 사회현상을 예로 들어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적절한 추가 질문을 한다면 또 다른 개념도 ‘덤으로’ 배울 수 있다. ‘공원은 수익이 없으니까 지대를 감당하기가 힘들겠네. 그럼 공원 관리는 누가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식이다. 학생들은 ‘정부’라는 답을 내리며 공공재 개념도 이해하게 된다.

어떤 게임이 옳다? 정답은 없어

그렇다면 수업에 게임을 활용하려는 모든 교사들은 반드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게임의 종류는 교과에 따라, 또 수업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신 교사 역시 퀴즈 게임, 영어 교사의 강의를 자막 없이 듣고 그 내용을 추론해보는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시도했다. 신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은 각 수업 주제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다”면서 “수업 주제, 학생들의 성향, 진도 등을 고려해 어떤 게임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수업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동료 교사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특히 직접 게임을 개발한 경우에는 수업 전 동료교사와 미리 게임을 해보며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게 좋다. 신 교사는 “이렇게 하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기 전 교사들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jeon01@donga.com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담양 드론체험교육장 ‘1일 드론체험교육’**

“4차 산업 조종사 나야 나!” 드론을 띄워라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에 조성된 초·중급자용 야외체험장의 모습(왼쪽)과 전문가의 드론 조종교육 모습.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제공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급속도로 바꿔놓고 있다. 무선전파로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 ‘드론’도 그 중 하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자유자재로 비행하며 촬영, 감시,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은 앞으로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드론 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자칫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하지만 전남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에선 이러한 고민 없이 마음껏 드론 체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산강보관리단이 운영하는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은 전문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론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총 3시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의 이론 수업과 2시간의 체험 수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에 앞서 실내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가 △드론이론 △항공법 △기조작법 △안전사항 등을 교육한다. 드론 항공의 원리 및 드론 작동 체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론 관련 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론 수업 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된 야외체험장에서 전문가와 안전관리요원 지도 아래 2시간에 걸쳐 드론비행강습이 진행된다. 비행강습은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급자용 체험장은 총 4개소로 나뉘어 있어, 동시에 4명씩 드론 조종이 가능하다. 초급자 체험에서 우수한 기조작 능력을 보인 사람은 중급자용 체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보다 넓은 공간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조종해 볼 수 있다.

하반기 ‘담양 드론조종체험’은 10월까지 운영된다. 화요일~금요일은 10인 이상의 단체, 토요일에는 5인 이상의 개인·단체, 일요일에는 5~10인의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하루 두 차례 각 3시간씩 회당 최대 20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여건상 드론체험교육장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교를 위한 출장교육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우리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riverguide.go.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드론조종사: 드론을 조종하여 고공 영상이나 사진 촬영, 기사 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행조종사와 같은 까다로운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드론에 대한 관심, 드론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정확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소마미술관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

미술관 속 직업인 찾고 또 찾고

미술관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관 하면 떠오르는 직업으로 ‘큐레이터’를 꼽는다. 전시 콘셉트를 정하고, 콘셉트에 맞는 작품을 모아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는 분명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이끌어 가는 전문 직업인 중 하나다. 하지만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외에도 다양한 직업인이 종사한다. 미술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직업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소마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국제 야외 조각심포지움 출품작 210여 점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소마미술관은 작품 전시 외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업무에 대해 소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를 운영한다.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은 물론 예술체험까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공인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사전교육(30분) △현장교육(20분) △사후교육(50분) △발표 및 마무리(20분)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에서는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외에도 큐레이터, 전시실 도우미, 도슨트 등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현장교육에서는 미술관 전시공간을 탐방하며 전시실 내 작품 설치

및 구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술관 직원(전시실 도우미, 도슨트 등)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다. 현장교육을 마치면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화를 알아보고, 모둠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사후교육이 진행된다. 미션은 미술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각자 미술관 직원이 되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사건 해결을 위한 모둠별 토론을 거치며 문제해결능력도 키울 수 있다.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모둠별 전시회 개최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소마미술관의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는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뉘어 학기별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1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 소마미술관 제공

회 30명까지 가능하고, 체험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소마미술관 홈페이지(soma.ksp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410-1341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전시해설사: 전시관·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 및 그를 둘러싼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역사와 배경,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해설 톨을 개발하기도 한다. 관람객이 전시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전해오는 이야기 등에 해설사의 경험을 더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설명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함께 재치 있는 유머감각도 요구된다. 근무 장소에 따라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이 사례는 최혜지 경기 석호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또래상담사들의 맹활약

아무리 상담교사가 노력한다하더라도, 때로는 열 명의 선생님보다 한 명의 친한 친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니까요. 고맙게도 우리 학교에선 또래상담사 아이들이 그 역할을 제법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친구의 심리검사를 직접!

서류평가와 면접까지 나름의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또래상담사들은 기본교육 8시간 외에도 다양한 보수교육,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1학기 우리학교 또래상담사들은 MBTI 성격검사와 스트레스지수 검사, 행복지수 검사 등 간이심리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심리검사가 어떤 목적에서 이뤄지고, 또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훈련을 받은 이후 직접 임상심리사가 되어 친구들의 검사를 도와주고, 그 결과를 해석해 주었지요.

간이검사여서 문항이 매우 간단하고, 아이들 역시 아무리 훈련을 받더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상담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향후 전개되는 상담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큰 동기를 얻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친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큰 소득은 또래상담사 아이들에게 학급 테두리를 넘어선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래상담사로 선발됐고 해서 모두가 사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반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아이들은 점차 '또래상담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성장은 전문상담교사인 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래상담사가 닿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기 학생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레이더'도 훨씬 넓어지는 셈이니까요.

친구와 친구를 이어주는 또래상담사

한편 또래상담사들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래 눈높이에 맞는 재기발랄한 캠페인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지요. 이번 2학기 생명존중주간에는 점심시간마다 이벤트존을 운영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더욱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래상담사들이 직접 기획한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것은 인스타그램 모양의 판넬과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활용한 '포토존' 이벤트였습니다. 포토존을 방문한 학생들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등 해시태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해시태그를 골라 인스타그램 판넬과 함께 사진을 찍



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고 싶은 친구를 말하면 또래상담사들이 즉석에서 인화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간식과 함께 해당 친구에게 배달해주는 것이지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진 선물로 친구간의 교우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또래상담사 아이들도 무척이나 뿌듯해했습니다.

이렇듯 또래상담사들이 제 역할을 해 줄수록 상담교사인 저에게도 무거워집니다. Wee클래스가 맡고 있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위기학생 관리와 같은 상담실 본연의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래상담사들이 든든히 활약하는 만큼 저 역시 더 힘을 내야겠지요?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군자중 교사동아리 '역량기반수업연구회'

“교사의 역량이 곧 학생의 역량”

서울 군자중은 2017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고민한다. 이 연구의 중심에는 교사동아리 '역량기반수업연구회'가 있다. 이 동아리의 활동 목표는 교사의 교과 역량을 키워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 이 교사동아리를 이끄는 이정은 군자중 도덕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자발적으로 공부·연구하는 교사들

'역량기반수업연구회'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다. 일방적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직무 연수에 한계를 느낀 교사들이 '동료 교사와 수업을 나누면서 내 수업의 개선점을 찾아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

10명의 연구교사들은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매 달 과제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일상에서 접한 다양한 콘텐츠와 한 권의 책에서 각각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느낀 부분을 정리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단순히 감상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실천적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이 교사는 최근 모

임에서 각자의 수업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는 '수업보기'를 제안했다. 교사로서 좋은 수업과 그렇지 못한 수업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로는 단연 성장하는 교사들의 모습이다. 특히 연차가 적은 저경력 교사일수록 마치 스펀지같이 연구 활동의 이점을 흡수한다. 이 교사는 "수업에서의 긍정적 변화도 크지만, 모임 때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면서 "동료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기쁨"이라고 전했다.

결과물은 적극 공유... 다른 학교 동아리와 교류도

역량기반수업연구회는 '수업태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수업태그'라는 이름의 웹진을 발행하기 때문. 웹진은 △수업철학에 대한 교사들의 토론 내용 △역량중심수업 연구결과 △수업개선기 등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담은 보고서로, 형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도 공개된다.

이 교사는 "교육적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 좋은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어 웹진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유형의 결과물



역량 기반 평가를 위한 수업 디자인을 논의 중인 교사들. 군자중 제공

을 만들면서 서로 더욱 활동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수업 나눔과 연구 결과 공유는 학교라는 테두리도 넘어선다. 다가올 11월,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의 수업연구보고회에 참여해 다른 동아리와 교류를 나누기로 한 것. 이 교사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라면 다른 교사동아리와의 적극 교류할 생각"이라면서 "교사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노력하는 옆의 동료 교사를 보며 자극 받고, 퇴보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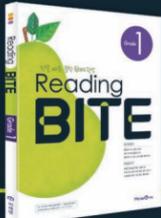


핵심 문법만 콕!
쉽게 이해하는
영어 문법 필독서
PREP-Grade 1,2,3-SUM(총 5권)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BITE

한 번에 잡자!



끝어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영어 독해 기본서
PREP-Grade 1,2,3-SUM(총 5권)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 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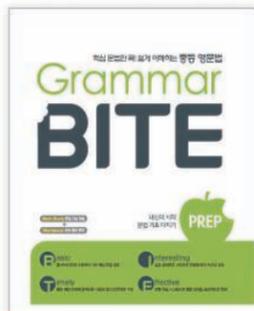
한 번에 잡자!

Grammar BITE

Reading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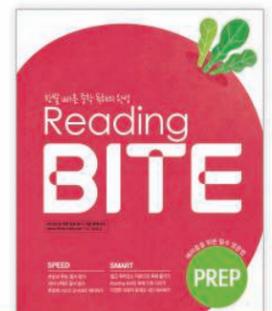
내신 및 서술형 완벽 대비
한발 앞선 수능 절대평가까지 대비

꾸어 읽는 직독직해로
중학 독해부터 수능 독해까지 대비



예비중을 위한
개념부터 내신 대비까지
중등 영문법 기초 다지기

PREP



예비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중등 영어 독해 기초 다지기



내신대비,
서술형에서 수능까지
중등 영문법 완성하기

Grad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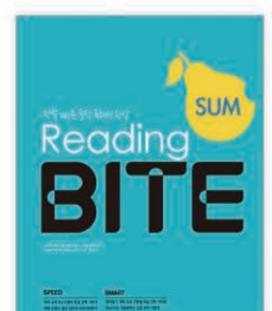


꾸어 읽고
직독직해하며
유형 중심 중등 영어
독해 완성하기



예비고를 위한
내신에서 수능까지
영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

SUM



예비고를 위한
유형별 학습전략으로
한발 빨리 수능 독해 준비하기